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권 1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제1권 1장~4장(1.1.1-1.4.4),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상권 41~59쪽

? 나를 제대로 알려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지식이 서로를 비춘다는 것을 양쪽 방향에서 모두 보여 줍니다(1장). 이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건으로 이어지는 앎입니다. 이 편은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다룹니다(2장). 칼빈에 따르면 이런 지식의 씨앗은 모든 사람 마음에 본래 심겨 있습니다. 종교를 비웃는 사람조차 양심의 두려움으로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3장). 그러나 사람은 그 씨앗을 무지와 미신, 고의적 외면, 겉치레 신앙으로 짓누르고 더럽힙니다(4장). 그래서 이 편은 “누구나 하나님을 어렵듯이 알지만, 아무도 스스로는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남기고, 다음 장들의 주제인 창조 세계와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절별 정리

 제1장 ·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1.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목차

PDF

1권 2편 →

칼빈은 참되고 건전한 지혜가 거의 다 두 가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지식은 여러 끈으로 묶여 있어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그 결과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나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곧장 하나님께로 옮겨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재능도 존재 자체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복들은 시냇물처럼 우리를 그 근원인 샘으로 이끕니다. 또 첫 사람의 반역 뒤 비참해진 우리 처지 때문에 우리는 굶주린 사람처럼 위를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자신의 무지와 공허, 가난과 연약함, 부패를 느낄 때에야 참된 지혜와 선과의 차이가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습니다(제 재능에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 상태에 머물기를 즐긴다는 경험을 근거로 둡).

1. 참된 지혜 = 하나님 지식 + 나 지식
2. 두 지식은 얽혀 있어 순서를 가리기 어렵다
3. 내가 받은 복은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4. 나의 비참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5. 자기에겐 불만이 없으면 하나님도 찾지 않는다

사도행전 17:28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근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2.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함

목차

PDF

1권 2편 →

타고난 교만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깨닫기 전까지는 늘 자신을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본성상 겉치레에 기울어 껌데기뿐인 의에도 만족합니다. 주변이 온통 더러우니, 그 안에서 조금 덜 악한 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검은 것만 본 사람이 얼룩진 것도 희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칼빈은 눈의 비유를 듭니다. 땅을 볼 때는 시력이 좋은 것 같지만, 태양을 똑바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땅 너머를 보지 않는 동안 사람은 자기 의와 지혜에 만족해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처럼 우쭐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지혜와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의는 더러움으로,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열심은 무능으로 드러납니다.

1.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나를 정확히 못 본다
2. 사람은 본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
3. 기준이 더러우면 덜 악한 것도 깨끗해 보인다
4. 태양 앞의 눈처럼 하나님 앞에선 무력하다
5.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직접 인용 없음)

흰색·검은색 비유와 태양을 보는 눈의 비유로 논증

3.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두려움에 압도되었다고 자주 기록합니다. 평소에 든든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죽을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을 견주어 보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의 비천함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흔했다고 말하며 사사기와 선지서, 욥기,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하늘의 스랍(천사)조차 얼굴을 가리는데, 썩은 물건이나 벌레 같은 인간은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해와 달처럼 가장 밝은 것도 그 앞에서 어둡이 됩니다. 이 절은 두 지식이 서로 얹혀 있더라도 바른 가르침의 순서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다루고 사람을

1.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성도들도 압도되었다
2. 하나님과 견주어야 내 비천함을 안다
3. 천사도 얼굴을 가리는데 사람은 어떻겠나
4. 가장 밝은 것도 하나님 앞에선 어둠이다
5. 가르침의 순서: 하나님 지식이 먼저

사사기 13:22

마노아의 “반드시 죽으리라” — 하나님을 뵈는 사람의 두려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사야 6:5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 — 거룩하신 분 앞에서 드러난 자기 부정함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

에스겔 2:1

엎드린 에스겔을 일으키심 —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 1:28

영광을 보고 엎드린 에스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사기 6:22-23

기드온의 두려움과 “죽지 아니하리라”는 위로

²²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욥기 38:1 이하

하나님의 지혜·능력 앞에서 사람의 우둔함과 무능이 드러남

¹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창세기 18:27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과 재”로 고백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열왕기상 19:13

엘리야가 얼굴을 가림 — 맨얼굴로 하나님을 맞을 수 없음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사야 6:2

스랍도 얼굴을 가림 — 하물며 사람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욥기 13:28

사람은 썩은 물건 같음

나는 썩은 물건의 낱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7:5

사람의 몸은 벌레에 덮임 — 연약함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시편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이사야 24:23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해와 달도 부끄러워함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제2장 ·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

1.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 ^

칼빈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지를 깨닫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지식도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죄에서 건져 내시는 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연 질서를 통해 가졌을 단순하고 원래적인 지식입니다. 타락한 지금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나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탱하고 다스리고 먹이신다고 느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은혜를 받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성경 전반에서 먼저 창조주로, 그다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구속주로 자신을 보이시며, 칼빈은 이 '이중 지식' 가운데 첫째를 먼저 다루겠다고 밝힙니다. 이 창조주 지식은 막연한 존경이 아니라, 모든 선이 하나님에게서 오니 그분께 구하고 기다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경건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1. 안다 = 존재 인정 + 내게 무슨 의미인지 앎

2. 경건 없는 하나님 지식은 없다

4. 화목은 중보자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5. 경건 =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온 두려움+사랑

고린도후서 4:6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구속주로 드러나심 — 두 번째 지식의 근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2.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짐

칼빈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따지는 것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무엇이 합당한가입니다. 에피쿠로스처럼 세상일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지내는 신을 고백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 지식은 첫째로 두려움과 경외를 낳고, 둘째로 모든 선을 그분께 구하고 받은 것은 그분 덕으로 돌리게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도자와 보호자로 믿고 맡기며, 어려울 때 곤장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자 아버지로 순종합니다. 또 의로운 재판장으로 의지하며 조심하지만, 피할 길이 있는데도 위촉될 만큼 심판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죄를 피하는 이유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경외하기 때문이므로, 지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자체를 끔찍하게 여깁니다. 칼빈은 참된 신앙을 '신뢰와 진지한 두려움이 결합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막연한 경외심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드물고, 화려한 의식이 많은 곳일수록 진실한 마음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입니다.

1. 나와 상관없는 신 지식은 쓸모없다

2. 참 지식은 경외와 감사로 이어진다

3. 내 취향의 신이 아니라 드러내신 하나님

4. 죄를 피하는 동기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

(직접 인용 없음)

하나님의 다스리심·선하심·심판하심이라는 속성과 신앙의 동기 분석으로 논증

“요컨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제3장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1.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

칼빈은 사람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위엄을 어느 정도 알아볼 능력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각자의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곳은 문명과 멀리 떨어진 민족이겠지만, 키케로가 말했듯 신이 있다는 확신이 없을 만큼 미개한 민족은 없고, 그들에게도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생각은 모든 사람 마음에 깊고 끈질기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손상된 이어지는 부분에서 칼빈은, 세상이 시작된 뒤로 종교 없이 지낸 곳이 없다는 사실과 우상 숭배까지도 이 지각의 증거로 듭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 아래 자신을 낮추기 싫어하는데도, 신이 없는 것보다는 나무나 돌이라도 섬기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흐름으로 보충).

1. 신에 대한 지각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2. 목적: 무지를 핑계 못 하게 하심
3. 그래서 양심이 스스로를 고발한다
4. 어떤 민족에게도 '종교의 씨앗'이 있다
5. 우상 숭배조차 이 지각의 증거다

2.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똑똑한 몇몇이 대중을 속이려고 만든 것이고, 만든 사람들 자신은 신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이를 철저한 허구라고 반박합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들이 종교의 여러 요소를 꾸며 대중을 두렵게 하고 굴복시킨 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신에 대한 생각이 미리 없었다면 그런 일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요점입니다(재료 손상 구간, 본문 흐름으로 보충). 그 증거로 그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듭니다(각주: 재위 37~41년). 누구보다 신을 노골적으로 멸시했지만, 두려운 징조가 나타나자 누구보다 비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신을 비웃던 사람이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 소스라치는 일도 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 애쓸수록 양심은 더 격렬하게 찢리고, 잠시 잊은 듯해도 그 생각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심은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불경건한 사람들 자신이 신 관념이 살아 있다는 증인이 됩니다.

1. '종교는 지배 수단'이라는 주장은 허구
2. 조작이 통한 것도 이미 신 관념이 있어서다
3. 신을 멸시하던 칼리굴라도 벌벌 떨어다
4. 도망칠수록 양심은 더 세게 찢른다
5. 불신자의 두려움이 신 관념의 증거다

레위기 26:36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도망함 —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양심이 겪는 두려움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3.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음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지울 수 없는 신에 대한 지각이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실패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오만이 오히려 그 믿음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디아고라스(종교를 조롱한 고대 그리스인)나 디오니시우스(시라쿠사의 폭군)가 종교와 하늘의 심판을 비웃어도, 그것은 냉소에 불과합니다. 불에 달군 쇠보다 날카로운 양심이라는 벌레가 속에서 그들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시간이 지나면 오류가 사라지고 종교가 날로 나아진다고 했지만, 칼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 지식을 던져 버리고 예배를 부패시키려 애쓰기 때문입니다(4장에서 다룸). 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으려 해도 본성 자체가 허락하지 않으니, 아무도 이 가르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재료가 손상된 이어지는 부분에서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나 살아간다는 점을 말하고, 플라톤이 영혼의 최고선을 하나님을 닮는 데서 찾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각주의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176 인용과 본문 흐름으로 보충).

1. 신 지각은 지워지지 않는다
2. 불신자의 발버둥이 오히려 증거다
3. 조롱은 냉소일 뿐, 양심이 속을 갉는다
4. 종교가 저절로 진보한다는 말에 반대
5. 본성이 하나님을 잊도록 두지 않는다

(직접 인용 없음)

디아고라스·디오니시우스·키케로·플라톤 등 고전 사례로 논증

제4장 · 무지나 악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으셨지만, 그것을 마음에서 가꾸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알려 하지 않고, 자기 추측대로 하나님을 상상해 꾸며 냅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멸망에 빠집니다. 아무리 경배하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도, 실제로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지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단순한 헛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 알려는 방자한 욕심에 거짓 확신이 겹쳐 스스로 어둠을 끌어들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 씨앗은 모두에게 있으나 가꾸는 이는 드물다
2. 드러내신 하나님 대신 상상한 신을 섬긴다
3. 그런 예배는 자기 꿈을 섬기는 것이다
4. 이런 무지는 교만이 원인이라 핑계 불가

로마서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꾸미는 어리석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21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짐 — 그러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으로 꿈꾸어 지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2.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



목차

PDF

1권 2편 →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이 먼저 일부러 본성의 빛을 꺼서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데도,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그 기억을 지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윗이 이를 '하나님이 없다'는 노골적인 부인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 그분을 하늘에 가두려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운명에 맡기고, 악행에 눈감고, 벌하지 않는 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어긋납니다. 스스로 눈을 감은 악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바울 말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므로, 어떤 신은 인정하더라도 그 능력을 빼앗아 죽은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맹목적인 충동에 끌려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 지배당합니다(재료 중간 일부 손상).

1. '하나님이 없다'는 존재보다 다스림의 부정
2.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고 섭리를 빼앗는다
3. 별하지 않는 신은 하나님 본성과 반대다
4.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5. 능력 없는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부인한 것

시편 14:1

“어리석은 자는 ... 하나님이 없다” — 고의로 본성의 빛을 끄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1

같은 말쓰임의 반복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태복음 13:14-15

¹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¹⁵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9-10

마태복음 13장이 인용한 원래 말씀

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¹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열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시편 17:10

악인의 둔해진 마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디모데후서 2:13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 — 능력 없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3.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임

이로써 많은 사람이 미신을 포장하려고 내세우는 핑계도 무너집니다. 그들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종교적 열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범으로 삼고 그 뜻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변덕대로 모양이 바뀌는 유령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 자신 그대로이십니다. 미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도 거짓으로

목차

PDF

1권 2편 →

세우는 사람은 사실 자기 환상을 경배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부릅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면 신을 하나로 생각하든 여럿으로 생각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우상뿐입니다. 칼빈은 진리와 결합하지 않은 종교는 순전할 수 없다는 락탄티우스(초대 교회 저술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1. 열심만으로는 참 종교가 아니다
2.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3. 하나님은 내 변덕에 맞춰 바뀌지 않는다
4. 미신은 명령은 버리고 쓸데없는 데 매달림
5. 참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건 우상뿐

갈라디아서 4:8

하나님을 모를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함 — 그릇된 신관은 무지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에베소서 2:12

참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4. 악인의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름

그들은 잘못을 하나 더 보탭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해서 생기는 자발적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두려워할 뿐이고, 그 사실 자체를 몹시 싫어합니다. 칼빈은 “두려움이 신들을 만들었다”는 로마 시인 스타티우스의 말이 바로 이런 불경건에 들어맞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가 뒤집히기를 바라며 사실상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지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그래도 '신이 있다'는 씨앗은 결코 뽑히지 않고 남지만, 그 씨앗은 그 자체로는 가장 악한 열매만 맺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두고 농담하다가 절망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이 무지했던 게 아니라 완악함으로 그 지식을 눌러 왔을 뿐임을 보여 줍니다.

1. 억지로 끌려가야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2. 경외 아닌 억지 두려움, 그마저 싫어한다
3. 겉으론 가까이, 속으론 도망친다
4. 사소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려 한다
5. 씨앗은 남아도 그 자체론 악한 열매만

(직접 인용 없음)

스타티우스의 시구와 '평안할 때 조롱, 절망할 때 기도'라는 경험으로 논증

오해와 반론

용어

경건(라틴어 *pietas*)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때 생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

이중 지식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로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부르는 말.

구속주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건져 내시는 분.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하나님을 말한다.

주보자

목차

PDF

1권 2편 →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계속 붙드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일.

신에 대한 지각(라틴어 **sensus divinitatis**)

누구에게나 본래 심겨 있는 '신이 계시다'는 막연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감각.

종교의 씨앗(라틴어 **semen religionis**)

신에 대한 지각이 모든 사람 안에 심겨 있다는 것을 씨앗에 빗댄 말. 가꾸지 않으면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미신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열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외식

속마음은 하나님을 피하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

위엄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 사람이 그 앞에서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며, 둘은 서로를 비춘다. 가르침의 순서는 하나님 지식이 먼저다.
-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외와 사랑, 신뢰와 감사로 이어지는 삶, 곧 경건이다.
- 신에 대한 지각은 모든 사람 마음에 심겨 있어 지워지지 않으므로, 아무도 무지를 핑계할 수 없다.
- 그러나 사람은 그 씨앗을 미신과 고의적 외면, 겉치레로 짓누르고 더럽혀 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길(창조 세계,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음 편들로 이어진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

목차

PDF

1권 2편 →